

● 외환리포트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60원 하락한 1,388.00원에 마감

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.60원 하락한 1,388.0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50원 하락한 1,389.1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환율은 방향성 재료 부재에 보합권을 횡보하다가,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에 하락했다. 다만, 미국 CPI 발표 경계감 등에 환율은 상승 전환하며, 1,388.0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5.1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0.65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1389.10	1393.50	1385.50	1388.00	1388.30

전일 엔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940.50	942.88	936.20	936.43

전일 유로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1617.56	1620.97	1610.22	1612.15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55	-6.61	-13.94	-27.2
결제환율(수입)	-1.1	-5.68	-12	-23.71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
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
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 가능

금일 전망

美 CPI 발표 경계감에...1,39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50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88.00) 대비 2.65원 상승한 1,388.1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 CPI 발표 전 경계감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금일 발표되는 미국 7월 CPI는 전월비 0.2%, 전년비 2.8% 상승해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 아울러 근원 CPI도 전월비 0.3%, 전년비 3.0% 올라 전월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. 7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,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시장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성이 제기됐다. 한편 15일 예정된 미-러 정상회담을 앞두고, EU의 외교안보 관계자는 러시아가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.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떤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.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러-우 휴전 합의 불발 가능성

이 커졌으며, 유로화는 약세를 시현했다. 달러인덱스는 미국 7월 CPI 발표 경계 및 러-우 휴전 불확실성에 강세를 보이며 0.24 상승한 98.51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를 반영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위축되면 서 국내증시 외인 투심도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,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미-중 관세 휴전 연장 소식 및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86.25 ~ 1394.75 원
체크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168.6 억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65원 ↑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美 다우지수 : 43975.09, -200.52p(-0.45%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7.58 억달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1182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